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 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다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반민권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안아온 전체 참가자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핵병기창을 지켜온 과학자들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더 큰 성과를 거둘것을 바란다고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서

에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 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열광의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의 병진로선판결에 이바지한 평범한 혁명전사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 참된 애국자로 내세워주시며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기념사전을 찍어주시는데 이어 오늘은 또다시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소탄개발자들의 신심에 넘친 모습을 보니 친군만마를 얻은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전문인들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 위력한 수소탄의 폭음으로 주체의 핵강국, 선군조선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추켜든것은 남로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제의 핵위협과 공갈,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기 위함인데 목적이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제재한다, 전략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등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당중앙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공간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에게 핵공격을 가할수 있게 핵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핵무장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최첨단과학기술의 불길줄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용을 더 높이 펼쳐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